

“고수온 피해 막아라”...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전략 모색

수산과학원·생태원 등 전문가 토론회 폭염·적조발생 등 분야별 선제적 대처

완도군이 양식장 고수온 피해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생태원, 전남농업기술원, 대학 교수, 완도군산림조합, 완도금일수협, 한국김생산어민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지방기상청 통계 결과 서해안안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47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이 1.6℃ 상승했고 최근 10년 동안 평년보다 1℃ 상승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구나 올 여름 서해안안은 평년보다 기온이 최대 1.5℃ 높고 폭염·열대야 일수도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16년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이 발생해 358억원의 양식생물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완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사는 “여름철 고수온

기 진도냉수대 변동에 따라 완도해역 수온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수온기 양식장의 직사광선과 자외선 차단에 의한 생물학적 효과 검토, 적조 발생 시 가두리 내 조류 소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국립생태원 팀장은 “기후변화로 생태계 파괴에 따른 종 다양성 감소가 심각하다”며 “아열대 작물에 적합한 화분매개곤충을 활용할 수 있는 양봉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가윤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사는 “기후변화와 농촌 노동력 감소 현상의 해결책으로 소규모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계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침엽수림 고사 피해 지역과 비교하여 해발 고도가 낮고 환경적응력이 좋은 곰솔군락이 분포한 지역은 아직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고사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점차적으로 산림 수종을 경제성이 높고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으로 가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폭염 및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5년 전남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해 바다 목장 및 숲 조성, 재난 예·경보시스템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및 유지 등 3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안좌 복호~신의 상태동리 신안군, 여객선 야간운항

신안군은 지난 12일부터 안좌 복호에서 장산 복강을 경유해 신의 상태동리까지 오가는 여객선의 야간운항을 시작했다.

안좌~신의 야간운항 여객선은 1일 2회 왕복 운항한다.

오후 6시30분과 9시에 안좌 복호항을 출발해 신의면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여객선 야간운항은 민선 7기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목포~도초, 압태 남양~비금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뱃길이다.

이들지역 섬 주민들은 그동안 열악한 해상교통 여건과 주간으로 한정된 여객선 운항에 따른 이동권 제약으로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해상교통 복지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합계출산율 7년 연속 1위 해남 “원스톱 보육 지원”

해남읍에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어린이집·육아나눔터·동네부엌 입주

해남군은 출산과 양육, 돌봄 등 통합적 가족지원 기능을 수행할 땅끝가족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남군은 해남읍 옛 공공도서관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010㎡ 규모의 어울림센터를 짓는다.

올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3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40여억원이 투입된다.

센터 내에 국공립 해남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입주해 주민 편의 및 가족 지원의 종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와 함께 지난 1월 개관한 해남군 장난감도서관을 이전해 육아정보를 나누는 거점으로 활용하면 젊은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실을 비롯해 육아 가정과 이주여성들을 위한 ‘동네부엌’, 군민들의 힘터로 개방될 ‘동네 카페’ 등도 들어선다.

해남군은 10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조감도.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의 성과를 넘어 보육과 양육, 가족지원의 통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에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 7일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 일정과 운영 등에 대해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인접한 공공도서관 등 주변 환경과

의 연계성, 안전성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합계출산율 1위 성과에 이어 양육과 돌봄, 가족지원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화 시설이 필요한 단계”라며 “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지역의 부족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구 정책의 큰 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국가어항 영광 안마항

5년간 330억 들여 시설 정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어항인 영광군 안마항 시설정비 공사를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5년간 330억원을 투입해 안마항 남방파제 300m를 보강하고, 물양장 201m를 신설한다. 또 항내 준설, 마을과 신규 물양장을 잇는 연결도로 583m를 신설한다.

1986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안마항은 1994년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기본시설을 마련했지만, 지속적인 퇴적과 시설물 노후화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귀표 목포해수청장은 “안마항 정비공사를 통해 수산업 기반 확보,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뤄져 국가어항 기능을 충분히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그린뉴딜 프로젝트 추진

“군민이 숨 쉬는 도시숲 탈바꿈”

진도군은 맑은 거리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목표로 진도군 그린뉴딜 플라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인 이 사업은 국·도비 27억원, 군비 24억원 등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군민이 숨 쉬는 도시숲, 입체적 맑은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 맑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산림경관 정비를 목표로 4개 분야 15개 사업을 펼친다.

주요 사업은 읍 시가지권역 가로경관·꽃길 조성,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 지원, 쾌적한 거리조성 등이다.

조경, 디자인, 도시 숲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군 ‘지방자치경영’ 우수상

양파 사주기 등 가격 안정 기여

무안군은 최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농축특산물 부문에서 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로 잠정 연기됐다.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관광·농수산·안전 등 10개 분야의 우수 시책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창의적 발전 전략과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다.

무안군은 2018년산 양파 소비 부진과 전국적 재배면적 감소에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2019년산 양파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물량의 시장 격리, 양파 소비 촉진 운동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우체국 온라인 판매 350t, 42개 기관 및 민간단체 354t, 600여 공직자가 참여한 공공부문 양파 사주기 운동 45.7t 등 총 750t의 양파 판매 실적을 올렸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TheK손해보험, NH손해보험